

범어 번역 4원칙 정승석 교수 제시



최근 부처님 원음이 기록된 법본 경전 등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높다. 한자를 거치지 않고

법본 경전을 그대로 한글로 이해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부처님 말씀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접하려는 신심의 발로이다.

이런 가운데 범어 번역을 통해 한역 불전에서 음역(또는 음사)된 단어의 한계를 뛰어 넘는다. 범어 번역 작업에 있어 편찬자 자신의 착란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석 동국대 교수(사진)는 4월 23일 인도철학회(회장 서행정)가 개최한 제30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번어(梵語)의 원어 착란 사례'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음역어 중에는 판각의 오류, 음역의 불일치 등이 큰 장애로 대두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원어에 관한 편찬자 자신의 착란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중국 최초 범어 사전인 <번어(梵語)>와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등 불전 어휘 사전 활용을 유의점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제시한 사항은 △대체로 출처가 가능한 <번어>지만 그 중에는 현존의 대장경에 수록돼 있지 않은 행방불명의 불전이나 잡경(雜經)이라는 불특정의 불전이 적지 않게 포함된 점 △불전을 필사하는 과정에 발생한 오기로 간주되는 사례가 잦은 편 △음역어 특성상 동일한 표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표제어로 제시한 음역과 출처에서 구사한 음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점 △편찬자 착오에 기인해 설명이 원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등이다.

정 교수는 "중국 최초 범어 사전인 <번어>는 다양한 오류 또는 착오로 점철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헌은 음역이라는 장애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 매우 유용한 실습 교재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승석 교수는 "하나의 불전에서 구사된 음역어는 이역본 등 다른 불전의 용례와 대조해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나 기자

용성 스님 선 vs 키요자와 정도

조승미 외래교수 '불교연구' 기고논문서 조명

1900년대 초반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불교의 '근대화' 분열과 세속화에 저항하던 두 스님이 있다. 백용성(1864~1940·사진)과 키요자와 만시(清澤滿之·1863~1903)가 그들이다. 이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나 불교적 가르침을 세상에 펼쳤지만 각각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배경은 너무나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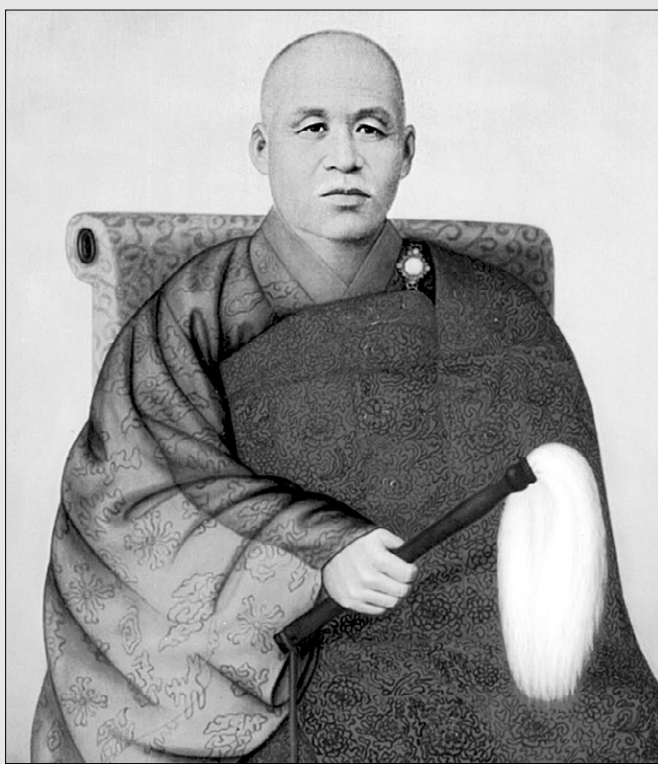
한국 불교는 일제 정권에 의해 분리·통제돼 가면서 근대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적 노력이 어려웠던 반면, 일본 불교는 메이지 정부의 국가주도 근대화에 동조하는 주류 보수의 한편으로 근대적 각성에 의한 혁신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펼치려 했던 용성 스님과 키요자와 스님의 불교사상도 달랐지만 각각 자신이 세운 '원형(原形)'에 의지를 갖고 불교의 근대적 상황에 대응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조승미 동국대 외래교수는 최근 <불교연구> 제32집(한국불교연구원)에서 기고논문 "원형"에 의지와 동아시아 근대불교"를 통해 백용성과 키요자와 만시의 사상을 조명했다.

조승미 외래교수는 "백용성은 자각을 중시하는 임제선종(禪宗)으로의 귀원(歸源)을 위해 원형적 의지가 담긴 불교개혁 운동과 활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16세에 해인사에서 출가한 용성 스님은 선 수행과 승단 내 선종 진작을 위한 활동으로 생애를 보냈다. 조 외래교수는 "용성 스님은 40세에 지리산 상비로암과 보개산 성주암 등에서 선회(禪會)를 열기 시작해 전국에 많은 선회와 선원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용성 스님은 개신교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1910년 <귀원정종(歸源正宗)>을 발간하고 이듬해 서울로 상경했다. 조승미 외래교수는 "개신교와의 경쟁과 갈등이 용성 스님이 처음 접한 종교의 근대적 상황이었다. 용성 스님이 '우리 불교에서는 각황사 하나만이



있을 뿐이고 더욱 우리 선종에서는 한 사람도 선전함이 없음'이라고 말한 것은 스님이 불교와 선종을 구분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조 외래교수는 "매일신보"에 용성 스님이 기고한 '조선에서 법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오직 임제 뿐, 우리들은 임제선종이다'라는 글을 볼 때 그는 조선불교의 정세는 '임제종'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용성 스님은 참선 포교활동도 지속했다. 특히 재가 여성들에게 직접 참선지도한 것이 확인돼 주목된다. 조승미 외래교수는 "1918년에 설립된 무주부인선회가 그것인데, 용성 스님은 서울에 주석하면서 한 번씩 내려와 이 선회를 지도했다고 하니, 그가 참선을 대중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근대 시기에 재가여성들이 참선 수행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에는 용성의 공이 매우 컸다. 승단에 선회와 선원을 설립해 온 그가 일반인들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은 분명 전근대적인 불교문화를 깨뜨

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대 일본불교에서 키요자와 만시가 활동하던 메이지 말기는 전(前)세대 불교가 보여준 호법·호국(護國)의 강조나 서구화 물결에 대응하기 위한 계몽주의 운동에서의 탈피가 시작됐던 시기였다.

조 외래교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짧은 인생을 살았던 키요자와는 순수함을 유지한 채로 '정신주의 운동'이라는 새로운 면서도 강한 원형지향의 종교실현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키요자와는 절대 타력(他力)인 정도종의 '신란(親鸞)사상'을 지향했다.

키요자와 만시는 정도진종(淨土眞宗) 오타니(大谷)파 승적을 갖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는 종단의 지위를 받아 동경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에서는 헤겔과 칸트 등의 서양철학을 배우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키요자와는 1888년 종단으로부터 심상중학교 교장의 임명을 받고 종단 소속 사찰의 키요자와가(清澤家)의 딸과 결혼해 성(姓)을 바꿨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그는 교정직을 사임

하고 금욕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조승미 외래교수는 "키요자와는 부인을 고향으로 보내고 금욕을 하고 육식을 금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종교수행을 했다. 교장직에 있을 때는 교수와 학생 모두 양복을 승복으로 바꿀 것을 지시했는데 재가종단인 정도진종의 세속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병을 얻어 요양생활을 했던 키요자와는 '절대 타력(他力)이라는 진종신앙의 원형을 체험하면서 현실 종단 개혁운동과 정신주의(精神主義)운동에 나섰다.

조 외래교수는 "키요자와는 1901년 잡지 '정신계'를 발간해 정신주의를 제창한다. 여기서 그는 절대무한의 여래(如來)에 전적으로 의존해 정신이 발달하는 정신주의는 다른 아닌 '타력신앙'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승미 외래교수는 철저한 타력을 말하는 그의 신념은 정도진종의 창시자인 신란의 가르침을 기록한 <단이초(歎異抄)> <아함경>, 스토아학파의 철학자인 <에피크테투스(Epictetus)의 어록> 등에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키요자와가 불교의 원형으로서 초기경전을 중시한 것은 매우 '근대적'인 현상이며 서양철학을 포함시킨 것은 그의 신앙이 불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며 "그는 진종 종주 신란의 타력신앙의 진수를 밝힌 문헌인 <단이초>에서 자력을 비판하고 절대타력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백용성과 키요자와의 불교개혁에는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보여준 불교운동 전개방식과 그 성격에는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우선 이들 모두 '승려본연'의 자세를 강조한 점이다.

조 외래교수는 "용성은 대체식육을 지저하며 계율준수를 가장 근본으로 여겼으며, 키요자와는 스스로 엄격한 금욕생활을 시도하거나 세속화된 종단 교육풍토를 전통적인 것으로 바꾸고자 했다"며 "또 이 둘은 모두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인 종교실현을 시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나 기자

日 근대문학 '스님과 그 제자' 분석

일본불교사연구소 세미나... 쿠라타의 대표작

일본불교사연구소(소장 김호성)는 4월 17일 동국대 다관관에서 '스님과 그 제자'를 주제로 제3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진명순 교수(영산대)가 '쿠라타 하쿠조론'을, 강준애 교수(동국대)가 '스님과 그 제자'의 공연을 위한 시공간 연출'을, 쯔노다 레이코 박사(오차노미즈 여대)가 '쿠라타 하쿠조의 <스님과 그 제자>와 그 사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스님과 그 제자>는 일본 근대의 다이쇼(大正)시대와 쇼와(昭和)시대 초기에 활약한 일본의 근대문학자이자 극작가인 쿠라타 하쿠조(倉田百三)의 대표작인 작품이다.

<스님과 그 제자>는 정도진종의 창시자 신란(親鸞)과 그의 제자 유이엔(唯円)의 일화를 그린 희곡으로 메이지 시대 이후 최대의 종교문학이라고 평가된다.

책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관동지방을 행각(行脚)중이던 신란 일행은 눈보라 속에서 히노사에 묵어있는 사람의 집에서 하루 밤 묵을 것을 청한다. 신란을 안 좋게 여긴 사에몬이었지만 결국 신란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고 그의 아들 마쨌와 카를 출가시키기에 이른다. 그야 바로 유이엔이다. 한편 신란의 아들인 젠란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연모해 타인의 운명에 해를 끼쳤다가 신란이 부자의 연을 끊은 상황에서 유녀(遊女)와 술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신란의 현신적인 제자가 된 유이엔은 젠란의 위선 없이 성실함에 감동해 스승부자의 사이를 되돌리기 위해 젠란이 거거하던 곳을 다니던 중 자신이 유녀 카에 데와 사랑에 빠지고 만다. 유이엔은

고뇌했고 정전에 힘쓰던 다른 제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에 이르지만 신란의 인도로 불문(佛門)에 들어온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 신란은 유이엔을 비판하던 모두에게 "비판하지 말고 옹서해야 한다"고 하고, 유이엔에게는 "여인에 대한 사랑을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키워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마지막 막(幕)에서는 신란이 임종시에 "부처님을 믿느냐"라는 물음에 대해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젠란을 받아들이며 신란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긍정한다.

진명순 교수는 "스님과 그 제자"는 신란이라는 전통적인 교단의 >는 신란이라는 전통적인 교단의 등장시켜 일반인의 감상에 맞추어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냈고 동시에 각 방면에서 연구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점에서 그 공적은 크게 평가 받고 있다"며 "하지만 신란이 제자의 사랑과 아들의 방탕이 불신감을 유발하고 왕생한다고 하는 신앙의 모순과 조화의 해석으로 작품의 내용을 전개시킨 점에 대해서는 진종교단으로부터 교의(敎義)상의 오해가 있다고 지적돼 불교학자들로부터 기독교화한 신란이라고 비판받은 작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호성 교수는 <스님과 그 제자>의 감상평을 통해 "이 희곡은 중심 인물이 신란이 아니라 유이엔임을 알게 된다.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심은 기생 가에데를 사랑하는 유이엔의 이야기이다"며 "유이엔과 같은 과거승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는, 융성하게 되는 새로운 이념의 종교철학이 신란의 가르침이고 진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나 기자

한국명상치료학회 '명상과 이동교육'

한국명상치료학회(회장 인경)는 4월 30일 오후 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상과 이동 청소년 교육'을 주제로 제7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황학자 교수(동국대)가 '위빠사나명상과 마음치유'를 △이동환 위빠사나 지도법사가 '위빠사나 명상수련의 치유효과'를 △김진(동방대학원대 박사과정)씨가

'염지관(念止觀) 명상과 유아정서지능'을 발표한다.

인경 스님은 "명상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보편화된 마음 수련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위빠사나 명상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나 기자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 →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중정품 : 희담석합장주 1개 (시중가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걸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진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가 가진 것임을 인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제19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를 찾습니다

본 재단은 불교문화 부흥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역경과 예술분야에 공로가 크신 분을 발굴하여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19회 행원문화상 수상신청을 받고자 공모하오니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부문

역경상	시 상 내 용	인원	상금
역경상	대장경을 비롯해 중요한 불교문헌을 현대어로 번역 하신 분	2명	각 500만원
예술상	1. 불교사상을 토대로 한 예술(음악, 미술, 연극, 무용)분야에서 업적을 이루신 분 (서화 부문 제외) 2. 방송, 연예활동을 통해 불교사상을 선양 홍보하고 대중화(포교)에 이바지 하신 분		

2. 시상 일

2010년 9월 14일 목요일

3. 후보자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본인신청 또는 추천서(소정양식)	1부
이력서(명함판사진 2매)	1부
공적서 및 증빙자료(최근 2년 이내 실적물)	1부

4. 접수처 및 접수 방법

- ①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67 강남종합상가 10동 401호 재단 사무국 (우 137-877)
- ② 접수 마감 : 2010년 6월 30일
- ③ 접수 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5. 수상자 발표

2010년 8월 중순 / 개별 통지 및 불교계 언론매체 발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사무국 ☎ 02)586-6521~2, fax 02)521-994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財團 行願文化財團
理事長 朱永云